

무용 체험과 인식과의 관계 연구*

한 헤 리**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무용 인식의 과정 |
| II. 무용 체험의 의미 | 1. 무용 창작과 지식의 관계 |
| 1. 자기표현 기술로서의 춤 | 2. 무용 인식의 구조 |
| 2. 미덕과 무용 체험 | IV. 결론 |
| | 참고문헌 |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experience and recognition

Han, Hea-ree · Kyung Sung University

The results of study on the meaning of a dance experience process and experiential function in the dance recognition process are as follow:

- Dance is an artistic state of individual's mind expressed by dancing which is one's self-expression technique. It also creates an artistic state of mind for other people facing the dance.
- The outside world faced by dance is not a conceptual understanding through knowledge, but direct meeting with it as an experience.
- Dance experience is a reflective act looking into oneself by illuminating back the observation and attention toward the external subjects.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 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4).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4. 04. 20. 심사일: 2014. 05. 20. 게재확정일: 2014. 06. 09.

- Dance, as a result, is an image which mind has created. The outside world exposed by the image is a manifestation of our nature in the end. This is a path where dance as one's self-expression technique becomes the one as emotional(mind) cultivation.
- If the essence of dance is subjectivity, its essential nature is an action. Moreover, as dance might be a result of the action with the environment,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dance is completed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 As dance is very close to the world of virtue rather than to the world outlined by knowledge, the value of dance lies in a virtue; and the virtue appears as a volitionally reproduced form.
- Dance in the knowledge world is the one in the culture which is a vast accumulation of changed humans and environments where they have experienced and been affected by the world of imagination historically.
- The recognition of dance is humans' self-understanding and thinking over the value of their lives.

key words: dance experience, dance recognition, self-expression technique, subjectivity, virtue

주요어: 무용 체험, 무용인식, 자기표현기술, 주관성, 미덕

I . 서론

무용 체험이란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무용 참여를 말한다. 무용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의 무용 체험은 예술 활동으로 창작(과정)과 미적 인식에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무용 체험이 창작 활동 관여는, 무용에서 미적 창조란 의지와 대상이 하나가 되어 제시되는 또 다른 형식의 지식이고, 무용 인식에서의 체험은 감성과 이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간 정신 작용의 결과물로서의 무용 인식과 무용 체험 과정에 대한 탐구로서, 무용의 형이상학적 파악 보다는 인식론적 탐색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무용 체험의 의미와 가치는 인성적 측면과, 인식의 측면에서 탐색되었다.

무용에서 인성과 인식의 영역을 분리하면 각각의 영역은 명확하고 또 정교해질 수는 있겠지만 무용 전체를 보는 시각은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류하기 학문(혹은 연구 방식)에서 연구되는 학문 영역별 방식 중 하나로 무용 체험의 기능을 탐구하는 방식 보다, 언제나, 어떠한 시각에 의해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잠재적 상태로의 무용을, 시대와 함께 변모하는 인간 인식의 확장으로 보고 무용 자체가 인식되는 과정을 연구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무용 체험이란, 삶(인생 과업)에 있어서 주된 활동에서 벗어나 있는 보조와 보완의 의미에서 그 어떤 좋은 경험이 아니라 인식의 방법이자 정신활동 과정에서 체험이다.

세계世界란 원래 사람과 대상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朱良志, 신원봉 역, 2013:440).

무용 연구는 무용과 세계의 관계 연구이다. 즉, 무용과 어떤 것 혹은 어떤 현상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그 관계에서 무용의 위치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체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무용 체험과 인식을 연계하는 탐구 방식에서는, 인간을 이성과 감성으로 분류하거나 신체와 정신으로 분리하고 또는, 인성과 행위를 분류하여 보지 않고 혈기(생명의 기운)를 본성으로 하는 완전한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용 체험은 사물에 대한 단순한 지각인 경험을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예술적 경험 등)을 포함하는 행위(몸으로 하는 직접적인 혹은 참여) 인식이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무용 체험이란 인간이 세계와의 직접 대면에서 그 경지를 넓혀가는 인식 과정을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능력을 가진 인간은, 형이상학적 주체로 보다는 사유 세계를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변양되는 행위 주체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인식의 방법 중 하나로서의 무용 체험과, 지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조하는 인간(창의적 인간)의 접점에서 인성(혹은 性情)론과 인식론에 기저를 둔 무용 체험에 대한 연구이다.

II . 무용 체험의 의미

체험은 특수한 인식 방법 중 하나이다. 즉, 실험이 물리적 방식으로 세계를 인지한다면 체험은 자신의 몸을 통한 인지 방식이다.

중국 미학의 순수체험 세계는 물질적 존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감성sensitivity이 아니라 생명 체험의 진실truth이다.

중국 미학에서 사람들이 흥취를 느끼는 것은 외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이 아

니요 외부 대상의 아름다움에 기인한 심리적 현상도 아니다. 중국 미학이 중시하는 것은 내심으로 되돌아가 지식을 씻어내고 나아가 만물을 체험하며 천지에 통하고 자신과 만물을 하나로 융합해 이로부터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朱良志, 신원복 역, 2013:6).

1. 자기 표현 기술(성정의 발현)로서의 춤

무용은 형식적인 학문이라기 보다는 심성의 학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생리의 정화 및 승화로 이므로 사유는 곧, 생명의 요구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은 표현된 생각이며, 무용은 곧 사유 세계의 표현이다.

사유의 산물인 무용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좋고 나쁜 것에 우선하여 생각 이후의 것으로, 개별적인 인간의 경지가 표현된 춤이 무용이다. 결국, 춤은 자기 표현 기술이며 이때의 자기(개인)란 이성, 감성 그리고 사유와 행동의 통합체로 결국, 인간 성정의 발로가 춤이며 춤을 도구로 표현된 세계가 무용이다.

‘발이개중절發而皆中節’해야 비로소 내심의 평정을 지킬 수 있고 ‘수중守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지키려고 해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추화趨和라고 합니다. 이로 보건데 ‘수중’과 ‘추화’는 서로 보완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추화’가 《중용》에서 말하는 ‘치중화致中和’입니다. 한편 ‘중’은 안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화’는 밖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은 정靜을 대표하고 ‘화’는 동動을 대표합니다(方朝暉, 박찬철 역, 2014:174-5).

정서 도야를 위한 심신 조절의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정확한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정서 도야로서의 자기 표현 기술이란 감정적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은 결국, 영혼의 상처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수신修身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한 자기 표현에 우선하는 것은, 진실한 자기 대면이다. 자아 인식에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자기 대면은 일종의 명상 혹은 몰입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고 또,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란 신체 기능의 연마로 보다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대상을 직시할 수 있는 심신의 조절 기술 습득으로 계발되기 때문이다.

무용 체험은 심신(개인)에 국한된 대면이 아니라 사물과 현상 그리고 타자 들(환경)과의 대면을 아우르는 외부 세계와의 대면이고, 무용은 대면한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 창

조된 영상靈像이다. 그러므로 무용은 감정 또는 사상(혹은 의식)에 대한 서술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성정(정서)의 인간 마음이 비추어 모습(형태, 상像)이 드러나는 하나의 체험 세계이다.

자기 표현이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인 것과 같이, 의미 추구 또한 인간이 가진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욕구 중 하나이다.

의미 추구의 인간 욕구가 무엇으로 구현되는가에 대해 프로이드는 과학과 종교를 대립적 구조로 설명하였지만, 과학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인류 구성소들 간의 대칭적 관계도 무너졌다. 과학은 인간의 모든 측면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함수화하고 그것들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과 근거까지도 만들었으며 과학적 수치나 물리적 결과는 언제나 그 기준이 제시 혹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동물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꼽으라면,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능력은 만성적으로 결여된 채로 지식만 가속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축적되지만 윤리와 정치가 다루는 문제들은 늘 반복된다(Grey, J., 김승진 역, 2014:86).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과학의 결과물은 물리적 형태의 데이터(정보)로 축적하며, 그 기억의 양도 무한대를 향해 확장된 뇌를 기술로서 만들어 내고 있다. 탈부착이 가능한 뇌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양산된 기구¹⁾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대처법(사용법)까지 기계와 함께 발전 하고 있지만, 내재화 되지 못한 기술의 발전은 심리적 과부화로 인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예술과 과학 등에서의 창조와 제작은 인간 정신 활동의 소산이고, 인간 정신활동의 주체가 마음이라면 무용의 회신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인식 이전의 단계(지각)인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의 결과가 마음에 비친 형상이고 무용은 곧 그 마음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정서 혹은 성정)의 도야는 무용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목적(결과)이면서 과정(방법)이 된다.

마음의 완성이 윤리로 표현될 때, 윤리가 존재의 규칙과 이치(道)이듯이, 마음의 완성이 무용으로 표현된다면 무용은 마음의 경계이다. 결국, 결과물로서의 무용은 마음이 만들어 낸 영상이고, 그 영상이 드러내는 외부 세계는 결국, 성정性情의 발로發路이다. 이

1) 컴퓨터, 스마트폰, tablet pc 등

것이 자기 표현 기술로의 춤이 정서(마음) 도야로서의 무용이 되는 경로이다.

2. 미덕과 무용 체험

살아있는 생물과 생태계는 높은 수준의 간접적인 협력, 기능의 투명성, 탈중심화, 유연성과 적응성, 역할 중복, 타고난 효율성이 특징이다(Kelly, K., 이한음 역, 2011:333).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여타의 생명체와 분류했던(하고있는) 서구의 고·중세 철학에 비해, 동양의 사유체계에서 인간은 혈기를 본성으로 하는 생명적 동물로 보았고, 사유체계는 형이상학과 존재론에서 인식론과 역사철학으로의 흐름이 경향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인간을 개념화하는 영혼과 정신은 능력을 함축하고 있는 마음mind과 의식consciousness으로 유동하여 언급되고 있다. 즉, 실제에서 활동으로 존재에서 생성으로 논의의 주제가 이행되고 있다.

선인들은 存心하여 良知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에 활력을 주고 인격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方朝暉, 박찬철 역, 2014:54).

의지력과 함께 다짐이 필요한 것이 존재감인데, 존엄을 준수하는 행위는 지혜(良知)에 의존한다. 그리고 지혜는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르게 실천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미덕arte(Aristoteles의 용어)과 같은 것으로, 존재감(혹은 자존감, 자아인식, 자의식)은 결국, 개인적 지혜와 미덕의 경지로서,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성을 내포하는 것이 공통의 성질이다. 즉, 축적되어 물리적으로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인간과 환경을 변화(변모)시키는 것이 공통점인 것이다.

인류에게는 직접 대면하는 삼차원 공간을 비롯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형태가 생존환경에 포함됩니다.

인류는 생존의 본능 아래, 물질적 환경의 여러 요소를 이용하고 창조적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런 정신과 물질의 상호 작용이 일정한 형태로 축적된게 바로 문화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창조한 문화와 대면할 때, 이런 문화의 형태는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환경에는 인문적 색채가 물든 문화의 정신이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환경을 문화환경이라 하지요(詹石窗, 안동준·任曉禮 역, 2011:356).

무용은 개인적 주관성이 객관화된 어떤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주관성(존재감, 자존감, 자의식)은 문화환경과의 작용으로 변양되는데 이때 변양되는 힘이 (미)덕德이다. 변양하는 힘(능력)의 한 요소(면)인 지혜는 지식과 구별되는 미덕이다.

무용을 미덕과의 관계에서 탐색하는 것이 정서 도야로서의 무용 혹은 수신修身으로의 무용 개념이며, 달리 표현한다면 삶(생활)을 예술로 여기고, 삶속에서 예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인생 여정으로서 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다.

무용이 감성 체험을 넘어선 생명 체험일 수 있는 것은 생태계에서의 인간은 타인이나 사회의 요구에 따른 삶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려는 소우주로서의 개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용을 포함한 예술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려는 사유 방식으로 보편적(큰) 틀에 맞추어 특수한(작은) 것을 보는 전형典型과 같은 귀류법의 사유 방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은 개별성(개성)의 존중과 함께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인정(이해, 배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용이 이미 주어진 의미를 다른 재료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실현해 보이거나, 제시된 가치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구현하고 가치 부여를 기다리는 잠재태가 되는 시작점이 개인의 주관성이다.

결국, 무용은 자기 표현 기술인 춤이 나타내는 개인의 마음의 경지이며, 무용을 대면하는 또 다른 개인에게 마음의 경지 -의경意境-를 만든다. 이 때 무용으로 대면하게 되는 (타자의 마음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지식을 통한 간접적(개념적)이해가 아닌 체험으로의 직접 대면이다. 즉, 무용의 의무가 지식으로 개괄된 외부 세계가 아니라 무용으로 비로소 드러나는 새로운 세계이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움직이는) 세계를 개괄할 수 있는 전형은 없으며, 개괄된 세계를 재현 해내는 것이 무용의 의무가 아니다.

무용은 마음의 경계-심경心境-이며, 체험으로 새롭게 보게된(알게된) 경지의 표현(像)으로 삶의 관계들에서만 존재하는 인간의 행위 세계이다. 그러므로 무용 체험은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과 관심을 되돌려 비추어서 자신을 들여다 보는 반성reflexion적 행위인 것이다.

물론, 무용의 개념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무용이 내포하는 아름다움의 깊이와 인생의 진실한 의미가 동일한 것은 바로 미덕과 무용의 관계 때문이며 미덕은 수신으로서의 개인의 체험 자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이란 의지를 통해서 획득되는 경험hexis입니다.
이에 따르면 덕이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얻는 것이며 경향이라는
점에서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변해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이란 감정이나 이성 또는 욕망의 짝이 아니라 의지의 짝이라는 것이죠
(이정우, 2008:144-5).

무용의 의미는 무엇을 구현하는가에 있지만, 그 가치는 무용 체험에서 생겨나는 것이
다. 무용은 그 자체에 소통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과의 작용에 의한 것이 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의 과정이 무용 체험으로 심경의 무용이 타자에게는 의경을 만들
게 하는 단초이자 자극임으로, 무용이 구현하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미덕의 경계로 그 미
덕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용 체험이다.

무용의 본성이 주관성이라면 본질은 작용이다. 그리고 작용은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
서 무용의 본질과 대립되는 것은 소외alienation이다. 무용이 세계(환경)에 어떻게 참여하
고 있고, 무엇을 위한 참여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무용은 세계에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무용이 환경과의 작용 결과인 것처럼, 무용의 의미와 가치는 환경(생태적, 정
치적, 윤리적 등)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무용은 지식이 개괄하는 세계 보다는 미덕(혹은 지혜, 良知)의 세계와 맞닿아
있으므로 무용의 가치는 영혼의 힘(능력)이라 할 수 있는 미덕에 있다.

III. 무용 인식의 과정

예술은 우리를 지적 고찰로 초대하는 바, 그것은 예술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이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이다(Hegel, Knox T. M.,
trans, 1975:II).

인류는 무용을 통해 체험한 세계의 자료들을 기록하고 저장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는
지식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인 과학적 진보를 기저로, 또 다른 질서를 가진 전혀
다른 형태의 과학이나 기술로 우주에 존재하고(개념화 되고) 있다. 동일성의 의미에 내포
된 것이 시간의 거부라면, 정체성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시간을 수용한다. 정체성에서 시
간은 변화와 차이를 말하며, 변화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것 그리고 다양성의 근본이 되는

것이 정체성이다. 그리고 정체성을 보존(存心)하려는 영원 참여의 방식 중 하나가 문화를 통한 것이다. 시대적 무용이 역사적 무용이 되고 역사적 무용이 문화가 되는 것이다.

1. 무용 창작과 지식의 관계

예술이 되고자 하는 것들은 취미를 통해 경험되기 전까지는 예술로 기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Greenberg, C., 1969:8).

인간은 생각과 도구 그리고 창작물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오늘날의 협력을 이끌어 냈으며 그 가운데 밝혀진 명제는 ‘차이가 진보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기 성찰(반성)을 동반하는 무용은 서로 다른 사유의 표현이다. 결국, 무용이 의미의 구현이 되면서 무용은 작품 그 자체로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머물지 않고 이론적 고찰의 대상이 되었다.

무용이 어떤 존재의 모방이고 재현이던 시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재현하는 행위의 제한성이 그 후 예술을 재현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식 주체가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예술은 모방과 재현에서 표상(representation)²⁾으로 이행되었다.

모방과 재현에서 자유로워진 예술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보다는 의미나 상상적 측면 그리고 질적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形相³⁾, 形狀⁴⁾)에 주목하게 되었다. 세계를 재현하거나 모방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용이 아니라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무용 경험의 특징은 주관적이지만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의 의식이 향하는 대상을 통상 외부세계라 부른다. 세계世界란 원래 사람과 대상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경계)가 마주 대하는 세계를 강조한다면 (마음속 경계)는 마음 속에 구성되는 영상을 강조한다(朱良志, 신원봉 역, 2013:440).

무용은 개인의 의식이 향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지식으로 이행되는 무용 체험(관조로서의 간접경험인 감상을 포함한)은 주관적 경험들의 역사적 저장고인 전승된 무용(혹은 문화에서의 무용)에 대한 가치 부여로 기억되고 지식으로 축적된다.

2) “인식론적 맥락에서 표상은 인식 대상이 인식 주체에 각인 되는 과정”(이정우, 2008:357).

3) 기능적, 심층적, 본질적 측면의 변화

4) 외양적 측면의 변화

주관적인 것이 자의적이지 않을 때에만 예술 경험이 된다. 그러므로 무용 경험은 감각과 지각에 국한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자의적이지 않은) 경험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은 세계에 갇히는 것이 라기 보다는 세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으로 쌓인 지식으로만 세계의 총체적 삶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주관적인 타인의 세계들을 경험함으로써 세계를 더 많이 알 수는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현실 세계들은 나의 가능 세계이기 때문이다.

무용이 구현하는 의미 세계는 각자의 주관성이 체험한 세계의 표현이고 구현된 의미를 탐구하고 앎(지식)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 또한 타자의 체험이다. 결국 무용 지식이 체험적 인식인 것은 가능 세계에 대한 체험으로 얻게 된 지식이 단지 어떤 이론이나 앎 자체로 머물러 있거나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성, 영혼)의 변화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지식이 삶과 연결되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논리이다. 그 인생의 변화에는 인간뿐 아니라 문화환경의 변화도 포함되며 결국, 인류 변화의 회동처는 체험적 지식이 된다.

체험적 지식인 무용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추론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세계를 사는 것이고, 주관적 체험 과정이다. 그리고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 기준과 기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정의(자의식, 자기 개념화)를 바꾸어 감으로 환경과 마음의 작용인 무용의 본성은 앎(지식)을 통한 변화이다.

발명과 창작의 방대한 축적물을 그난 문화culture라고 말하면 안될까? 이런 용법으로 쓸 때, 문화는 우리가 창안한 모든 기술에따가 그 발명의 산물들과 우리의 집단 마음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할 것이다(Kelly K., 이한음 역, 2011:19).

현실세계와는 다른 상상(창작되고 제작된 가상)의 세계가 무용이다. 그리고 지식 세계에서 무용은 역사적으로 상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영향을 받은 변화된 인간과 환경의 방대한 축적물인 문화에서의 무용이다.

2. 무용 인식의 구조

지식이 존재의 의미를 개괄하는 것이라면 무용 체험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무용은 경지의 표현(像)으로 삶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인간의 행위 세계이다. 그러므로 무용 체험은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과 관심을 되돌려 비추어서 자신을 들여다 보는

반성reflexion적 행위인 것이다.

“인식은 감성과 이성이 힘을 합칠 때 가능”(이정우, 2008:71)한 것으로, 무용을 인식 질료로 만드는 것이 감성이다. 감성은 인간이 가진 능력들 중 하나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외부 환경이나 대상을 감각 자료나 인식 질료로 만든다. 윤리학의 용어로 쓰이는 감정과 달리 인식론의 개념으로의 감성은 오성 또는 이성과 구별된다.

특히, 인식에 있어서 언어가 사회적, 역사적 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정도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듯이 오늘날 인식은 의식이라는 추상적 존재 보다는 무용과 같이 구현된 의미 그리고 의식을 내포하고 보여지는 무엇으로 표현된 경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진실한 지식의 의미도 문자나 언어적 기록 혹은 의식적 의례나 행위로 전승되는 물질적, 정신적 축적인 문화 보다는 개인의 깨달음(지혜, 혹은 良知)으로 유동하고 있다. 결국, 인식이 경험(혹은 노닐·遊)에 의한 것이라면, 지식은 경험의 과정 속에 감각의 확장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무용 체험은 무용 인식의 방법이 된다. 경험과 인식과의 관계를 영국의 경험론이나 칸트의 경험론에 국한시킨다면 무용 경험은 지각을 통해 다시 지식의 틀 안에서 인식에 이르게 됨으로 언어적 개념으로 축적된 지식의 틀에서 읽혀지지 않는 무용은 체험적 인식일 수 밖에 없다.

감각의 재료가 된 대상을 인식한 결과로서의 무용은 언어가 아닌 형상으로 마음의 경계를 보여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의 경계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정신활동이 인식의 구조이다. 그러므로 무용이 구현하는 의미란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체험의 강도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인식은 감각, 지각, 기억, 상상, 판단, 추론, 직관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런 인식 능력을 가진 인간의 특성이 협력적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과 감정, 용기와 신념 그리고 의지와 지혜의 보편성이 감각 과정은 물론 직관의 단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눈으로부터 정신으로의 그리고 모방으로부터 표현으로의 이러한 이행은 이전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지 못했던 수많은 요소들 -예컨대 성실성-을 비평의 담론 속으로 가져오게 하였다(Danto, Arthur C., 이성훈·김광우 역, 2004:141).

무용 인식의 첫 단계인 감각은 신체의 한 기관에 포착된 것이고 포착된 것을 대상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지각이이므로 지각은 감각과 인식의 중간 단계로 여겨진다. 지각이 형성한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은 대상을 분석하고 개념화하고 범칙화(보편화)하는 과정으

로, 주관적 체험 경계의 상징인 무용을 타인(가상)의 세계로 체험하고 주관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용 인식이다. 이는 심경의 상징인 무용이 타인들에게 의경을 만드는 과정이다.

왕필은 말했다. ‘무리와 접촉하는 것은 상이요 뜻에 합치하는 것은 징이다’ 상이란 류類를 본 뜬 것이요 징은 뜻을 알아내는 것으로 합해서 상징이라 했다(朱良志, 신원봉 역, 2013:448).

우리는 상징에서 두 개의 요소를 찾아내야한다. 하나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의미의 표현이다. 여기서 의미는 하나의 관념 또는 대상이고 표현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감성적 존재 혹은 하나의 형상이다’(Hegel,G.W.F., trad, Jankélévitch S., 1979:32).

수용 미학의 견해에서 무용을 포함한 모든 읽기literacy의 과정은 그 자체로 감상의 과정이다. 무용 읽기dance literacy와 무용 체험의 차이는 인지 방법이고 공통점은 목적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과정의 전개가 곧 목적이라는 점이다.

무용을 하나의 상징으로 아는 것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은 다르다. 무용에 대한 이해는 안다와 모른다는 문제이기 보다는 아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용이 구현하는 의미는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용 인식은 체험의 강도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무용이 구현하는 의미를 알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무용 체험은 가상 세계 즉, 상상의 세계 체험으로 그 때의 앎이 체험적 인식이다. 그리고 그 체험이 인간(영혼 혹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관여한 정도가 체험적 인식의 강도(깊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도 변화 했다와 하지 않았다 혹은 변화가 있다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 정도가 핵심이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서로의 접촉에 의해서 양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태의 변화는 어떤 주관성(물체)이 타자(다른 물체)에 각인되는 것을 뜻하고 거기서 생기는 것이 관념이다. 따라서 무용 인식은 어떤 무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의 원리와 원인에 대한 인식이다.

결국, 인식은 경험 주체의 감각, 지각, 기억, 상상등의 정신적 능력에 판단력, 추론 능력 그리고 직관 능력이 더해진 인간의 정신 작용이다. 더불어 무용 인식은 역사적-사회적 지평에서 이루어 지는 지식의 종합이지만 여기서의 지식은 정보나 이론도 테크닉도 아닌 체험으로 무용 인식은 인간의 자기 이해(자존감, 자아 인식)와 삶의 가치를 사유하

려는 것이다. 결국 삶은 관계와 겪음 그리고 변양을 뜻한다. 감정을 동반하는 내적인 겪음의 파토스pathos는 주관성을 가진 각자가 대상을 똑 같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질의 소유 이유이다. 따라서 삶은 지속적인 감정의 변화를 겪고, 그에 따라 변양되는 과정이며, 삶을 사유하는 무용은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무용으로 나타난 삶의 과정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는 행위가 무용 인식이다.

IV. 결론

체험과 지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창의적 인간)과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접점에 있는 무용 체험을 대상으로한 본 연구는 무용 체험의 의미와 가치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무용 체험을 창작(제작)과 이해(인식)에 관여할 때로 분류하면, 무용 체험 연구는 한 면은 인성적, 심리적(혹은 개인적) 측면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론적 규명이 된다.

본 연구에서 무용 체험이란 인간이 세계와의 직접 대면에서 그 경지를 넓혀가는 인식 과정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능력을 가진 인간은 형이상학적 주체로 보기 보다는 사유 세계를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변양되는 행위 주체로 보아야 한다.

무용 인식 과정에서 체험의 의미와 관계들과의 작용에 대한 탐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무용은 자기 표현 기술인 춤이 나타내는 개인의 마음의 경지이며, 무용을 대면하는 또 다른 개인에게 마음의 경지 -의경意境-를 만든다.
- 무용으로 대면하게 되는 (타자의 마음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지식을 통한 간접적 (개념적)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의 직접 대면이다. 즉, 무용은 지식으로 개괄된 외부 세계가 아니라 무용으로 비로소 드러나는 새로운 세계이다.
- 무용 체험은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과 관심을 되돌려 비추어서 자신을 들여다 보는 반성reflexion적 행위이다.
- 결과물로서의 무용은 마음이 만들어 낸 영상이고, 그 영상이 드러내는 외부 세계는 결국, 성정性情의 발로發路이다. 이것이 자기 표현 기술로서의 춤이 정서(마음) 도야로서의 무용이 되는 경로이이다
- 무용의 본성이 주관성이라면 본질은 작용이다. 그리고 무용이 환경과의 작용 결과인

것처럼, 무용의 의미와 가치는 환경(생태적, 정치적, 윤리적 등)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

- 무용은 지식이 개괄하는 세계 보다는 미덕(혹은 지혜, 良知)의 세계와 맞닿아 있으므로 무용의 가치는 영혼의 힘(능력)이라 할 수 있는 미덕에 있으며 미덕은 의지적 변양으로 나타난다.
- 지식 세계에서의 무용은 역사적으로 상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영향을 받은 변화된 인간과 환경의 방대한 축적물인 문화에서의 무용이다
- 무용 인식은 인간의 자기 이해(자존감, 자아 인식)를 통해 삶의 가치를 사유하는 과정이다.

참고문헌

이정우(2008), **개념, 뿌리들 2**, 산해.

方朝暉(2008), **儒家修身九讲**, 박찬철(역, 2014), **나를 지켜낸다는 것**, 위즈덤하우스.

朱良志(2006), **中國美學十五講**, 신원봉(역, 2013), **미학으로 동양 인문학을 꿰뚫다**, 알마.

詹石窗(2006), **道交文化十五講**, 안동준·任曉禮(역, 2011), **도교문화15강**, 알마.

Danto, Arthur C.(1997), *After the end of art*, 이성훈 김광우(역, 2004),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Greenberg, C.(1969), "Avant-garde and kisch",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brian(ed. J. 1993).

Grey, J.(2013), *The silence of animal: on progress and other modern myths*, 김승진(역, 2014), **동물들의 침묵**, 이후.

Kelly, K.(2010), *What technology wants?*, 이한음(역, 2011), **기술의 충격**, 민음사.

Hegel, G. W., Knox T. M.(1835). *G.W.F. Hegel's Werke*, Jankélévitch, S.(trad,1979), *Esthétique deuxième volume*, Flammarion.

_____.(trans, 1975), *Hegel's aesthetics lecture on fine art*, Oxford: Clarendon press.